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딸이 지킨 우리집

글 박재식 경기

“아빠 이상해.”
 전화기 너머 들리는 7살짜리 딸아이의 목소리다.
 “뭐가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하하하. 유치원은 잘 갔다 왔어?”
 “응 아빠. 잘 갔다 왔어.”
 점심을 먹고 졸려서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으려는 차에 큰아이한테서 온 전화였다.
 “그런데 아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누가 방귀 뀌었나? 하하! 누가 뀌었어? 엄마야 아닌 동생이야?”
 평소 아이들과 통화할 때 이런 농담을 자주하는 나는 그 날도 마찬가지로 장난 끼가 발동을 하였다.
 “아빠,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 처음 맡아 보는 냄새인데, 이상해.”
 딸아이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좀 더 격앙되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부터 항상 집안에서 처음 맡는 냄새가 나면 꼭 아빠나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고 교육을 해 왔고, 소꿉놀이를 할 때에도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아이들은 “아빠, 이상한 냄새 나.”라며 나한테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해 왔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바귀.”
 “엄마는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 나 혼자야.”
 나는 그때서야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야? 정확하게 말해 봐.”
 “잘 모르겠는데 타는 냄새야.”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기 시작했다. ‘혹시 불이 났나? 아니면 아내가 요리하다 가스 불을 안 끄고 나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수야! 아빠가 지금 바로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사무실 자리를 박차고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100m 달리기를 할 때처럼 심분을 정신없이 뛰었다. 직장에서 집까지 가는 데 걸린 30분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타야 할 지하철은 왜 이리 안 오는지……. 지하철에 오르자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올랐다. 우선 딸에게 전화를 다시 했다. 지하철 안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큰소리로 “부엌으로 가 봐.”, “아빠 무서워.”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 나의 평소답지 않게 커진 목소리에 아이도 그만 놀라버린 것이었다.
 “지수야, 아빠 말 잘 들어. 부엌으로 가 봐.”
 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엌에 왔어.”
 “혹시 가스 불 켜져 있어?”
 “아니야, 아빠.”
 혹시 아내가 가스 불을 켜고 갔을까 하는 나의 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다. ‘그럼 뭐지?’ 다시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그럼 큰방에 가 봐. 혹시 다리미가 있는지.”
 나는 신혼초기 아내가 다림질을 하다가 끄지 않고 다른 불일을 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와서 그렇게 또 예상을 해 보았다.
 “아빠, 다리미 없어.”



맥이 탁 풀렸다. 일단 전화를 끊고 ‘그럼 도대체 뭐야? 가스불도 아니고 다리미도 아니고…….’ 그때 갑자기 작은아이 방 컴퓨터 콘센트가 떠올랐다. 항상 전기 콘센트를 많이 꽂아 놓았던 곳이다. 콘센트 하나에 10개 정도의 플러그를 꽂아 두었다. 가끔씩 지나치면서 ‘빨리 전선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곳이다. 콘센트 위치가 책상 밑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던 것도 뇌리를 스쳐갔다.

다시 딸에게 전화를 했다. “지수야 동생 방에 가서 컴퓨터 알지? 컴퓨터 밑에 전기들 꽂아 놓는 데 봐.” 잠시 후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컴퓨터 밑에서 연기 같은 게 나.” 그리고는 딸은 크게 울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멍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속으로 ‘침착해야 해. 당황하면 안 돼.’라고 수십 번을 외치자 정신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우선 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스위치가 떠올랐다. 작은아이 방 컴퓨터 전원은 집안 구조상 콘센트가 모자라 거실에서 이어서 쓰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거실 콘센트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겁먹은 딸아이가 잘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지수야 동생 방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빨간 불 들어오는 스위치 있지? 그거 눌러 꺼.”

딸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빠 췌어.”

“잘했어. 그럼 빨리 집밖으로 나와. 빨리 나와.”

통화하던 나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지고 급기야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하철 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뺨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창피한 줄도 다른 사람의 말도 눈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달렸다. ‘혹시 불이 났으면 어떡하지? 제발 불이 나지 않았으면…….’ 아니야, 콘센트 스위치를 켜니 괜찮을 거야. 희비가 교차했다. 뛰어서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울면서 아파트 통로 앞 화단에서 울고 있었다. 일단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너 무나 잘해 줘서 고맙고 다치지 않아서 반가운 마음에 왈각

눈물이 났다. 곧 바로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고 작은아이 방으로 들어가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콘센트는 열을 받아 누르고 일부분은 검은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휴유 한숨이 나왔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쌓인 먼지로 콘센트에 합선이 일어나면서 과열로 연기가 난 것 같았다.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한꺼번에 꽂거나 쌓인 먼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육은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교육을 통해 받았지만 그냥 교육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온 것이 사실이었다. 결정적으로 먼지가 쌓인 콘센트를 보고도 지나쳤던 나의 소홀함이 가져온 결과였기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 맡는 냄새가 나면 아빠나 엄마한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교육을 시킨 덕분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뿌듯함도 있었다. 요즘에도 화재 관련 뉴스를 볼 때면 그때 그 아찔했던 생각이 난다. 혹시라도 그 당시 딸아이가 냄새를 맡지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전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집 전체, 아니 아파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으리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때 냄새 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또 침착하게 스위치를 꺼 준 딸아이 때문에 화재도 막고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집안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민감할 정도로 챙긴다. 콘센트도 모두 새것으로 바꾸고 반드시 플러그도 하나만 꽂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청소기로 콘센트 먼지를 청소한다. 또한 아파트 앞 편의점을 가도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다. 딸아이 때문에 예전에는 없던 좋은 버릇들이 생겼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가끔씩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집 안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면 전화하는 거 알지?”라며 교육 아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지키는 화재 안전은 절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소한 것부터 항상 살펴보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